대만, 티베트 불교 스님 차별 '논란'

티베트 불교 출가자에 비자 제한
입국 스님 3년 사이 10배 줄기도
포교활동 지장…사찰 폐쇄 속출
대만 외교부, 法수 정 위해 노력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계 스님들에 대한 비자제도 완화를 요구한 기자회견. 사진출처=대만 경제일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불교를 전파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 그러나 포교에 힘쓰는 대부분의 출가자들이 난민 신분인 까닭에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대만에서 티베트 불교로 출가한 스님들에 대해 비자발급에 제한을 두는 등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대만 전문 온라인 매거진 '타이완 인사이트'는 최근 일어난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대만은 중국대륙을 제외하고 중화권에서 가장 많은 티베트 불교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대만 문화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의 주요 4대 종단에 소속된 사찰로만 약 473곳의 티베트 불교 센터가 있으며, 티베트 불교를 믿는 신자는 약 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급성장하는 교세에 맞춰 티베트 불교로 출가한 티베트인 스님이나 타 국적 스님들이 대만을 방문해 포교활동에 매진했으나 최근 입국하는 티베트 불교계 스님들의 수가 급감했다. 2019년 한 해 대만을 방문한 티베트 불교의 스님들이 2천 명이었던데 반해 그 이듬해 2020년엔 400여 명으로 급감했고 지난 2022년엔 불과 173명만이 대만을 방문했다.

'타이완 인사이트'는 "대만의 현행 비자법에서 무국적자는 단 2달만을 방문하는 갱신불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해외에서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 난민신분으로 무국적자인 티베트인 스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티베트 난민이 아닌 인도나 네팔, 부탄 등 다른 티베트 불교문화권 국가의 국적을 가진 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비자문제로 인해 포교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센터의 경우 이로 인해 폐쇄를 결정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직결하여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측은 "스님으로 위장하여 대만에 입국한 중국국적의 티베트인과 중국인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주중국 네팔영사관에서 발급된 여권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현재 대만 외교부는 티베트 불교의 출가자들에 대해 예외 없이 비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재반론도 만만치 않다. 난민여권을 소지한 티베트인 스님이나 인도와 부탄의 시민권을 가진 스님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고 더더욱 난민여권을 소지한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6일, 대만 불교계와 대만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센터 112개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티베트 불교 출가자에 대한 부당한 비자제한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대만 티베트 불교계는 "타국가, 타종교의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또 난민이 아닌 타국가의 스님들에게까지 난민들과 동일한 비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국가의 국적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불교계와 협의하여 비자규정의 수정 혹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스님이 열심히 돈 버는 까닭은?

"스님은 삶, 직업과는 별개"
사업 경영하는 스님 화제


교계행사에서 법문을 하는 미즈타니 료기스님(우측). 사진출처=니프티 뉴스

계율 상에서도, 일반 사회인식에서도 출가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비판적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신자들의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사찰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사찰차원에서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부업'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업을 떠나 당당하게 직업으로서 사업을 경영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지난 6월 30일 일본의 'SPA! 뉴스', '니프티 뉴스' 등은 사업경영에 열심인 스님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교토시에 거주하는 미즈타니 료기 스님은 현재 카페 바, 피부 관리실을 경영하고, 뮤지션이자 헤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도 비판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스님은 "스님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인 제가 돈을 버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미즈타니 스님은 주변의 우려나 비판에 대해 "승려로서 포교활동과 강연은 물론 신도의 요청에 따른 법요도 봉행하고 있다"며 자신의 가장 정체성은 출가자임을 강조했다.

스님이 다양한 사업체를 경영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성장배경이 한몫했다. 어릴 적 스님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12세에 출가한 미즈타니 스님은 출가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출가 후 본가인 사찰의 일을 도우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스님은 뮤지션의 꿈을 가지고 음악전문학교로 진학, 절을 나와 도쿄로 상경했다. 그러나 스님은 "음악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일로 헤어 메이크업을 배웠다"며 자신의 또 다른 이력이 생긴 계기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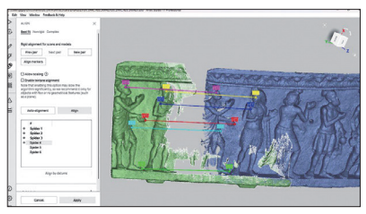
이후 21살에 소속종단인 정토진종의 종립대학인 류코쿠 대학에 진학, 불교교학을 공부하는데 매진했다. 동시에 재학중에 경력을 살려 헤어 메이크업을 개업했다. 미즈타니 스님은 "이 때가 가장 돈을 잘 벌었던 때다. 1200만엔(한화 약 2억원)까지 자산이 불어났다"면서 "그러나 리먼사태로 자산이 100분의 1로 사라진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남은 자산을 모아 재기에 성공, 카페와 바를 함께 하는 카페 바로 다시 일어섰다.

필사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스님은 "자활을 위해 자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절에서 받고 있는 월보시금 6만엔(한화 약 55만원)은 전액 사찰이나 포교활동에 사용한다"고 사찰의 수익과 개인의 수익을 구분했다. 스님은 "삼보정재를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좋아하는 물건을 사거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찰 밖에서 벌어들인 돈을 사용해야한다는 주의다.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활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출가자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의미에 대하여 스님은 "단 한 순간도 출가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다. 언제든지 나는 스님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내 안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사찰의 일. 출가자로서 앞으로 젊은 세대를 육성하고 싶다는 발원이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독일 루르大,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3D 스캐닝 통한 유물 대중화 목표


3D스캐너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사진출처=DiGA

지난 6월 27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독일 루르대학의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 소식을 전했다.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이끄는 독일 루르대학의 제시 폰스 박사는 "간다라의 많은 불교 유물은 비전문가, 도굴꾼에 의해 발견됐다"면서"유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물의 고고학적 맥락에 대하 거의 알지 못해 간다라 유물 연구에 난관을 겪는다"고 말했다.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의 고고학 및 박물관 관리국과 협력하고 있다. 목표는 파키스탄의 착다라 박물관과 이탈리아 고고학 사절단이 소유한 1,791개의 간다라 유물을 디지털화 하는 것이다.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2017년 11월에 파키스탄과 공식 프로젝트로 전환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중 COVID-19의 대 유행이 있었지만 카이버 박툰크화 정부 고고학 박물관국(KPDOAM)과 원격 디지털 캠페인을 운영해 2D 사진촬영으로 전체 컬렉션의 디지털화를 완료했다.

사진 작업이 끝난 유물은 3D 스캐닝을 통해 보존 및 복원의 손상 평가, 연구를 위한 시각적 기록을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배포되며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대중 스마트폰, 태블릿, VR안경을 통해 보고 창의적인 용도로도 활용 할 수 있다.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도메니코 팟세나와 안나 필리젠지의 〈간다라 조각품 목록 작성 용어집〉(2007)을 바탕으로 유물의 설명 및 관련 테이터를 표기해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할 계획이다.

최근 간다라 유물 디지털화' 프로젝트팀은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와 협력하여 유산 사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고고학 자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계획하고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박물관 소장품의 관리, 보존, 분류 및 보존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을 교육했다.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협력 프로젝트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에서 받은 환대에 보답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 박물관, 인도 초기불교 조각 특별전

파니기리 발굴 3점 최초 공개
11월 13일까지 메트로폴리탄


사자-마카라(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물고기)와 부처의 탄생이 조각된 토라나. 사진출처=아마라바티 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인도 초기불교 조각 특별전을 개최해 화제다.

지난 6월 23일 인도 일간지 '텔랑가나 투데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인도 초기 불교 조각 특별전을 개최 소식을 전했다.

'나무와 뱀 - 인도의 초기 불교 예술 기원전 200년~기원후 400년'은 오는 7월 17일~11월 13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에 수리야펫의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에서 발굴된 익슈바쿠 시대(3~4세기)의 아야카(조각장식을 한 기둥), 사자-마카라(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물고기)와 부처의 탄생이 조각된 토라나(탑문,塔門), 코끼리-마카라가 조각된 토라나 총 3점이 대중에 최초 공개된다.

텔랑가나주 문화관광부 '스리니바스 고드' 장관과 '산디프 쿠마르 술타니아' 수석비서관은 특별전 오프닝 세션으로 참석해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와 전시에 선정된 불교 조각품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술타니아 수석비서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리야펫 파니기리 불교 유적 발굴 현장을 방문해 대탑, 봉헌탑, 강당, 승원, 사원 등의 구조물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시품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전시가 끝난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인도 초기 불교조각전'은 2024년 12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관련 공지는 7월 중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티베트불교 역사상 『입보리행론』에 가장 정통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톡메 상뽀가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해설서이다.
톡메 상뽀 저, 수다지 켄포 한역, 지엄 한글 편역/신국판/양장/640쪽/값 40,000원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